

오월영령 ‘소리 없는 목소리’… 45년 흘러 현대와 조우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전시

5·18기념문화센터서 25일부터
김홍빈·심혜정·정기현 작가 참여
영상 작품 등 세 가지 섹션 구성
오월어머니집 초청 연계행사 등

광주의 오월은 단순히 해를 나누는 단위로 읽히지 않는다. 작가 한강이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존재했던 ‘광주’는 단순히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가 된다고 언급한 것처럼 광주의 오월 또한 자유·평화를 갈망했던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연대를 상징하는 보통명사인 셈이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했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을 가했다. 당시 무장한 군인들을 맨손의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서던 비현실적 순간, 소설 ‘소년이 온다’의 동호는 오월항쟁의 공간을 건너 현재의 우리를 바라봤다. 45



전시 ‘소리 없는 목소리’의 세 번째 섹션인 낭독부스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이곳에 들어가 책을 낭독하고 녹음할 수 있다.

년 전 광주 오월의 처절했던 순간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가장 인간다운 행위로 총칼에 맞섰던 순간은 마치 5·18 광주시민의 목소리가 현재와 조우하는 경험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이다. 45주년 5·18을 더욱 조명하기 위한 전시가 마련됐다. 한강 노벨문

학상 수상 기념 특별전시 ‘소리 없는 목소리’가 25일부터 오는 6월22일까지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소설의 텍스트를 목소리로 복원해 들려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김홍빈, 심혜정, 정기현 등 3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총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 구성됐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전광판 사진 위에 블루프린트 천을 덧씌운 설치작업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분수대로부터 뿔어져 나와 물처럼 보이는 블루프린트 천은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영정사진을 의미한다. 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 광장에 뻘뻘하게 모인 불특정의 사람들을 찍은 사진 위에 덧씌워져 있는데,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돼 묘지조차 없이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기리는 역할을 한다.

전시의 첫 번째 섹션인 ‘작은 서가’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다양한 번역본을 전시한 자리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에서 번역·출간됐던 작품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번역본이 함께 전시됐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3개의 영상이 독립된 채널로 상영된다. 전시장 오른쪽 한편에는 영상 작품 ‘제1장 어린 새’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과 짝을 이루는 작품은 지난 2023년 제작된 ‘어린 새, 소년’이다. 당시 소환된 동호의 시야를 따라 흐릿한

광주의 모습에서 시작해 점점 또렷한 모습으로 변한다. 두 영상은 동호엄마의 독백 영상인 ‘꽃 핀 쪽으로’에 대한 답변이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광주로 걸어온 소년을 함축한다.

세 번째 섹션은 낭독부스에 들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작업으로 구현된 이 섹션은 책과 녹음 시설이 갖춰져 있다. 관객들은 이곳에 들어가 ‘소년이 온다’의 각 단락을 이어가며 낭독하고 녹음할 수 있다. 스페인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국가의 ‘소년이 온다’ 번역서들도 비치돼 외국인 관객들도 함께 낭독에 참여할 수 있다.

개막일인 25일에는 오후 5시30분부터 오픈 행사와 강애심·권지숙 배우의 낭독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두 배우의 특별한 낭독이 공동체를 잇고자 마련한 이번 전시에 울림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4일에는 오월어머니집(윤삼례, 최은자, 이정덕, 장명희, 김형미)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월어머니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물건을 통해 오월을 이야기하며 관객들과 공유할 전망이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싱가포르의 호추니엔

아시아 근대성 탐구 시각예술가
“예술적 실천으로 변화 명제 만들 것”

내년 개최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싱가포르의 시각예술가이자 기획자인 호추니엔(Ho Tzu Nyen·사진)이 선임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3일 아시아의 근대성을 탐구해 온 호추니엔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밝

혔다.

호추니엔은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 감독으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동시대 미술의 담론 제시라는 광주비엔날레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차별적인 전시로 부각할 기획자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호추니엔은 지난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과 2021년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

하는 영혼’에서 광주비엔날레커미션으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올해 무담 북섬부르크, 지난해 아트선재센터, 도쿄현대미술관, 2023년 싱가포르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2011년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2014년 제10회 상하이비엔날레, 2019년 아이치트리엔날레, 제14회 샤르자비엔날레 등에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특히 그가 제작한 영화는 세계 3대 영화제로 알려진 베니스국제영화



제(2009), 칸 영화제(2009), 베를린국제영화제(2015) 등에서 상영됐다.

기획자로서 호추니엔은 국립대만미술관이 주최하는 제7회 아시아미술비엔날레 ‘산과 바다를 넘어온 이방인들’을 공동 기획했다.

호추니엔 예술감독의 선임으로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기후 변화, 예측 불가능한 질병, 후퇴한 민주주의 등 각기 다른 위기에 둘러싸여 무력해진 개인을 넘어 인

류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의 예술적 실천과 이를 위한 상호 연대에 주목하는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호추니엔은 “광주라는 도시에서 예술감독으로서 독특한 모험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져 꿈만 같다. 지난 20년간 축적한 에너지, 개성, 관행, 작품, 명제들을 한데 모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이겠다”며 “예술적 변화의 실천이 민주화의 변화를 이끈 이 도시와 어떻게 공명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이자 하나의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명제를 만들어내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찬 기자**

희경루에 울려 퍼지는 풍류소리… 26일 개막

‘2025 희경루 풍류소리’ 선배
상·하반기 나눠 총 10회 운영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등

광주의 전통 누각 희경루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23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 따르면 ‘2025 희경루 풍류소리’를 오는 26일부터 선보인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희경루: The Timeless Stage 2025’라는 주제로, 상·하반기로 나눠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는 △전통복식 행렬 △창작 연희 △전통 타악 퍼포먼스 △시민 참여형 체험 마당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이다.

조선시대 왕실과 지방 관아의 전통 행렬 퍼포먼스를

비롯해 전통 타악 퍼포먼스, 줄타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현장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먹거리 등이 준비된다. 특히 26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개막 행사는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과 CLARTRIC 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전통 행렬과 현대 퍼포먼스를 접목한 무대로 마련된다.

이어 사단법인 ROND문화플랫폼의 ‘희경루 트롯風(풍)’(5월3일), 앙코르챔버오케스트라의 ‘풍류소리, 금관의 빛으로 그리다’(5월10일), 비담의 ‘국악×재즈: 두 개의 울림’(5월17일), 단미-Dan Mi의 ‘희경루 연가’(5월24일), 불랑의 ‘희(喜)락(樂)별곡’(5월31일)이 차례대로 관객을 찾는다.

모든 행사는 희경루 앞 잔디밭 야외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독창적인 프로그램과 풍성한 경품을 통해 많은 관객의 발길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어린이날 선물 ‘옴니버스 인형극’

내달 5일 야외공연장 달빛마당서

국립남도국악원이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을 마련한다. 다음달 5일 오후 3시부터 야외공연장 달빛마당에서 선보이는 2025 어린이날 특별공연 ‘옴니버스 인형극’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은 매년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펼쳐왔다. 올해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 인형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인형 조종술과 전통연희를 전공한 전문 예인들이 참여해 섬세한 인형들의 움직임과 감미로운 연주를 통한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낼 전망이다.

공연의 출연 단체인 ‘연희공방 음마깡’은 한국 전통 인형극의 복원과 재현을

목표로 창단돼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와 탈미(인형극) 종목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모여 활동 중이다.

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도 준비된다. 인형극에 맞는 탈 만들기, 떡 매치기, 풍선아트와 비눗방울 체험 등이 운영되며 오후 5시 공연 종료 후에는 출연자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 추로스와 솜사탕, 슬러시, 커피차를 준비해 현장을 찾은 모든 방문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진도 청년예술가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협업해 어린이날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어린이날 특별공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061-540-4038)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